

**▶ 다음 질문으로 서로의 마음문을 열어보세요.**

Q. 나의 어릴 적 꿈은 무엇인가요?

▶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무덤에 머물러(찬 160장) / 예수 부활했으니(찬 164장) / 주님께 영광(찬 165장)

▶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합니다.**▶ 모임기도 (셀리더 또는 말은 사람이 기도해주시면 됩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48.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8-49절 | 개역개정)

▶ 금주 말씀 되새기기 /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다”**1. 부활 신앙은 고난 속에서 정착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계란을 들고 공원에 나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시민들도 이제 우리의 소식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 부활을 이야기하면 잡아가거나 사기꾼,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외면당했습니다. 심지어 사회적 불이익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예수 부활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핍박을 이기고 온 세상에 부활 복음을 퍼뜨렸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활은 쉽게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제자들도 처음부터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의심하고 부정했습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지만, 사도들은 그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반응했습니다. 베드로는 직접 무덤에 가보았지만, 믿음보다는 당혹함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좌절한 채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분의 부활을 깨달았습니다. "그 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는 고백처럼, 믿음은 지식이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실 때, 믿음은 시작됩니다.

3.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은 처음엔 그를 유령으로 오해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하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만져 보라고 하십니다. 또 그들 앞에서 음식을 드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너무 기쁘므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고 만졌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자 비로소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씀을 깨달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자라 납니다.

4. 너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며,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100% 믿고 밖으로 뛰쳐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부활 믿음의 완성은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아래의 질문으로 은혜로운 나눔의 시간을 가지세요!

1. 부활의 소망은 나의 현실에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나요? 나의 생각, 감정, 선택, 관계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나요? (참고말씀: 벰전1:3, 고전15:19, 요20:19, 롬8:11)
2. 부활의 소식을 반드시 전해야 할 사람 두 명 이상을 적어봅니다. 왜 그 사람에게 꼭 전해야만 하는지 이유를 셀원들과 함께 나눠보고, 그 명단을 가지고 일주일 이상 함께 중보하길 결단해보세요!
3. 내가 가진 이 부활 신앙이 더욱 단단해지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성령님을 기다리며, '이 성에 머물라'는 명령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영적 태도를 구체적으로 결단해보세요.

▶ 나누었던 내용과 더불어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1. 부활을 확신하며 담대히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2000년 전 필립 속에서도 부활을 전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2. 말씀과 성령으로 부활을 온전히 믿게 하소서

때로는 부활을 쉽게 믿기 어렵고 의심이 찾아오지만, 주님께서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소서.

▶ 지금은 '셀 헌금' 시간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면 좋습니다.)

-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 셀 리더가 드리진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